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인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 거짓말

학문이란?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이 사람이 11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학문은 학문이 아니요, 이 세상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반증을 대야 그래야 종교가 없었다. 학문이 없었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학문이 어떤 학문이라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한 생각을 그려 논 학문이 바로 오늘날의 학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건 배울 학(學)자 글월문(文)자, 배우는 글을 가리켜서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울 수가 없는 것은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왜 죽는지? 또한 사람이 동물인지? 사람이 하나님 자식인지, 신인지? 사람이 도대체 왜 병에 걸리고, 왜 늙는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고, 사람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도 모르는 것도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학문이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학문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의식에 의한 마음을 그려 놓은 것 인고로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의 정체는?

욕심이 죄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죄니까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마귀 종이고, 마귀 종이 마귀새끼요, 마귀새끼가 마귀인고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사실을 이 세상 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학자들한테 배울 학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죄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사망의 요소인고로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려라.”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왜 버려라고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고 있으니 참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항상 버려라고 했는데 나라는 게 누구를 믿으면 나라는 게 천당 간다고 했으니 그건 참말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의 말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구원이 없는고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걸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만 믿으면 나라는 게 천당 가고, 나만 믿으면 나라는 게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고 하는 말은 영이 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마음이 영혼이요, 생명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



구세주 조희성

으니 말씀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가하면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곧 생명이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려면 바로 사람 속의 생명이 바로 다른 생명이 아니요 그제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건 학문이 아니요, 이걸 모르는 건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야.”고 했으며 “생명이 성령이요.”고 하였으니 바로 생명이 영혼이요, 생명이 곧 피인 거 십니다. 그런데 피가 곧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쓰여 있는고로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했으니 피가 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영인고로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피가 되고로 죽은 사람

의 피가 죽는 순간 하늘로 쫓 뻘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몸속에 있는 피는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지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자식들 속에 조상의 피가 있는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후손들 속에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데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피가 영이라는 말이 왜 맞는 말이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작용이라는 건 바로 피의 작용인고로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

집이 세고 성격이 과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인고로 피가 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 불경을 가르친다 하니깐 바로 웃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영혼인고로 피로써 몸이 되고 살이 되고로 사람의 몸이 바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육이라고 하는 그런 멍텅구리들, 육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비비 종교가들이 육체가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서 영혼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 천당 가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합니다. 성경이나 불경 속에 무슨 말이 쓰여 있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라고 하였 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은 마음이 없는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당 간다고 말 하는 사람은 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고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될 때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안 되고,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라는 건 바로 죄인의 마음이 지옥이요, 천국은 의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 천국인고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들어가는 곳이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자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거짓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나 불경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고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사람이 가고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사람은 절대로 영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92년 3월 28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일반적으로 학문의 문은 물물 문(問)을 뜻하는 학문(學問)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사전에는 글월 문(文)을 사용한 학문(學文)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학문(學文)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생애실계연구소장 서동은님은 『논어 속에 학문(學文)』에서 학문(學問)을 지식의 향배를 공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학문(學文)은 삶의 근본을 밝히고 그 근본을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배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학문(學問)은 지식 축적을 말하는 것이요 학문(學文)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 놓은 글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신을 입술과 생각으로 믿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제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 사랑(仁義 대자대비大慈大悲)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때이다. 이것이 곧, 우주 저 너머 아니 하늘에 있는 신을 이 땅위에 생생하게 모시는 길이고, 신이 이 땅위에 재림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무지몽매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투쟁과 살육의 인간의 역사를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새 신민(新民)이 사는 새 세상(지상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 길만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비극과 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신앙관과 행동지침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전에는 한결같이 '사랑'

힌두교 경전의 구원론은 현신과 선행,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 사랑,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의이다. 모든 종교의 핵심 가르침은 사랑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종교의 본질은 어디 가고 그 겉껍데기가 되는 교단의 역사 교세 교의가 참 종교의 잣대가 되었는가? 오늘날의 종교의 행태는 신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 살상 전쟁도 불사한다. 과연 이게 신의 뜻이고, 신을 믿는 자의 태도와 행실인가!! 지금의 신의 거룩한 뜻은 마치 돈과 물질과 권력에 더 가

깝다. 아름답고 고고한 가르침은 어디 가고 거짓과 위선 사기 등 인간늠음만 만연하다. 지금의 종교는 본질을 망각하고 교단의 역사나 교세나 교인의 수로 정통이니 참 종교라고 우겨달 뿐 사랑이 없다. 아무리 천사와 거룩한 성인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 헌신 자비의 배품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박제 된 것이고 날조된 교리며 죽은 신앙이자 종교이다.

경전 수천 번 읽는 것보다 하나의 선행이 더 신의 뜻에 가까워

자기가 다니고 믿는 종교의 교리 교의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치켜세우는 것보다 진정으로 자기 종교를 높이는 행위는 작은 선행 하나이다. 죽은 송장 70억 구가 있어도 산 사람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가치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경전의 말이 수록되었다손 치더라도 행함이 없는 수많은 경전의 말은 아무런 덕과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 예배의식과 신의 찬가를 아름답게 하더라도 진정으로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따뜻함과 배움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처럼 차갑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

신의 거룩한 뜻, 인간의 간절함 배법은 인류가 평화롭게 영생하는 것

신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인간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신의 거

신의 뜻, 신이 되는 길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모습

룩한 뜻을 얘기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은 신의 이름과 뜻을 가장한 사악한 마귀의 꾀계에 사로잡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적처럼 원수처럼 말하고 대하는 신앙인은 종교인을 빙자한 사기꾼일 따름이다. 자기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죽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은 선한 영생의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이다.

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애(愛)를 위해 이타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을 키워야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지간의 육욕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괴롭고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안타까운 사정과 처지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이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괴물에게 먹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인 인간의 공통분모적인 아픔이다.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가슴속 깊이 공감할 때, 인간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져 살기 좋은 세상의 첫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없이 세계 평화와 인류애는 다 위선이요 날조된 것이다. 우선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과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에 대한 공통분모적인 처지와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다.

진정 인류애를 널리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수녀, 아프리카의 성자 일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뛰어난 인성과 의술을 펼친 장기려 박사는 바로 인간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는 고통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였다. 보통 사람이 어렵고 병든 이웃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통 사람의 인성을 뛰어넘는 경지의 성정이 없다면 병든 이웃을 돕는 것을 평생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려 박사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장기려 박사는 1911년 10월 5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1950년 12월 전쟁을 피해 차남 장가용과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다. 월남하던 당시 이미 1940년 일본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온 장기려 박사는 부산 영도에 간이 병원을 열고 피난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된다.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양

부족 환자에게 닭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입원비가 없는 환자를 직원이 없는 시간에 퇴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있었다. 장기려 박사는 간이 병원에서 환자의 육체를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를 해주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 간이 병원에 는 치료비가 없는 어려운 환자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이후 선생은 저가의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1989년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전국적으로 23만여 명의 국민자를 보살피게 된다. 또한 장기려 박사는 대학병원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각 치료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어려운 환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장기려 박사, 그가 생전 자신을 위해 갖고 있었던 것은 병원 옥상에 갖고 있던 24평짜리 주거용 공간이 전부였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거창한 자선과 기부 아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자그나마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서로 소통하고 화목하며 돕고 사는 것이다. 신앙과 신의 찬미가 별개 아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심에서 아름다운 공존공생과 지구촌 평화와 조속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신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가 신이 되는 길도 거기에 있다.*

김주호 기자